



# “민생 회복 100일 긴급대책기구 설치를”

### 이상봉 의장, 어제 후반기 임시회 개회사서 제안 4.3·민생경제·저출생고령화 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정을 시작하며 제주 현안과 직결한 특별위원회를 본격 구성·운영한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정은,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대천동·중문동·예래동)는 15일 도의회에서 제430회 임시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갖고 제주4.3특별위원회, 제주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주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등 3개 특위 구성에 따른 결의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각 특위 위원 선임은 제2차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1993년 시작한 4.3특위는 그동안 4.3특별법 제·개정,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대응하며 도민사회에 화해와 상생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이 위원장을 맡는다.

특히 후반기 4.3특위는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 절차 이행상황 점검 ▷4.3 희생자 범위 확대와 피해 신고 접수 상설화 ▷가족관계 특례 조항 신설 등을 다룬다.

제주 최대 현안인 민생 안정 및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다만 현재 위원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는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대책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선다.

2027년 예정된 제주의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를 대비해 저출생·조령화대책특별위도 설치된다. 지난 1월 기준, 도내 고령인구 비율은 17.9%에 이른다. 지난해 제주지역 출생아는 3200명이며, 합계출산율은 0.83명에 불과하다.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이 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상봉 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읍)은 이날 본회의 개

회사를 통해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0일 긴급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장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관광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1차산업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0일 긴급대책기구’ 설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장은 김광수 도교육감에게 제2부교육감 신설 등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현안의 공론화를 통한 속의민주주의 실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일방통행식 교육청의 조직개편을 비판했다.

백금타자 haru@ihalla.com

## 문인관에서

### “제주의 미래가치는 곧 환경의 가치”

제주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인의 보물섬’이다.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제 그리고 5개의 탐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이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그러나,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유입인구의 증가와 관광객 급증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교통, 쓰레기, 하수처리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해외에서도 너무 많은 관광객 때문에 찌름하고 있는 세계 관광지 5곳 중 하나로 제주를 지목하는 등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어찌보면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위상이 느껴지는 대목이지만, 4대 국제보호지역을 보유한 제주에서 그에 걸맞은 환경정책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의 식량, 에너지 등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경제 전 분야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걸 보면 ‘총, 군, 쇠’가 지금도 여전히 고도화된 현대 문명의 흥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듯하다.

미래세대에서도 여전히 ‘총, 군, 쇠’가 문명의 흥망을 좌지우지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고, 이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친환경’을 앞세워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더 많은 무기와 금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탄소와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문명의 위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는 제주의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일지도 모른다. 다시 한 번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과 개발이라는 가치 이념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의 환경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제주 미래의 가치가 환경이라고 모든 이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실천적 행동은 뒤따르고 있지 않다. 실천적 행동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방적인 행정문화도 원인을 제공했다고 여긴다. 제주의 미래 가치가 곧 환경의 가치라면 환경정책과 사업결정에 있어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 그리고 도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결정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 4대 국제보호지역 보유 그에 걸맞은 환경정책 올바르게 가는지 점검을

이 정말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스스로 돌아봐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환경과 개발이라는 가치의 충돌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첨예하게 대립되어온 주제이다. 제주의 가치는 환경이라고 모든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제주 지하수의 지속이용 가능성이 위협받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역 마을의 남비현상으로 인한 갈등, 꽃자왈 등의 자연환경 보전과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갈등, 악취·소음 등 생활환경 민원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이 제주가 직면한 현실이다.

풀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총, 군, 쇠’이 세 가지로 인류 문명의 흥망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 “남방큰돌고래와 플로깅” 도,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을 전개한다. 도는 이번 행사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생물 보호 인식을 높여나가는 분위기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첫 플로깅은 오는 28일 오후 1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2리에서 이뤄진다.

행사는 전문 다이버와 지역 주민인 해녀들이 바다 속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수중에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중에서 진행되는 플로깅과 함께 도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진 온라인 신청을 받아 플로깅 행사도 펼쳐진다.

두 번째 플로깅 행사는 오는 8월 24일 오후 1시 제주시 김녕해수욕장에서 지역 주민을 비롯해 도내 초·중·고학생 및 학부모, 관광객 대상으로 이어진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https://www.instagram.com/plogging\\_with\\_jeju.dolphin/](https://www.instagram.com/plogging_with_jeju.dolphin/)) 또는 현장에서 가능하다.



## 제주도·의회·교육청 “청렴한 제주 만들겠다”

### 어제 청렴 실천 공동 선언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도의회가 공동으로 ‘제주 청렴 실천 공동선언서’를 개최하고 청렴한 제주사회 구현을 다짐했다.

15일 제430회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이번 선언식에서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 이상봉 도의장이 참석, 청렴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3개 기관 공동으로 청렴시

책 운영 협의체인 ‘제주 청렴플랫폼’ 운영 등의 의지를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공직자의 출신 수범을 통한 지역 청렴 문화 조성 ▷도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투명한 행정 구현 ▷불합리한 관행 개선 위한 제도개선 등이 포함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체질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교육감은 “모든 교육가족, 도민들이 함께 청렴 제주교육을 실현하여 청렴으로 빛나는 제주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청렴 실천 공동선언을 계기로 청렴이 제주 발전의 기본 근간이자 원동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청렴 문화가 공직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위원장기자 yswi1968@ihalla.com

##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윈터프린스

탐나는봉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토모, 일반묘)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하례조생 / 미래향 / 제라온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토모, 일반묘)**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공천조생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온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포토모, 화분묘, 일반묘)**

하귤 / 팔삭 / 세미늘 / 금귤 / 당유자 / 머틀립오렌지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감귤 무병묘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생산, 모수포 보유)**

**보조사업 묘목공급 지정업체 (원지정비의 지원사업 서류가능)**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정!!!**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토모, 화분묘 분양 ◆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화사판매 가능 ◆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식원)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총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쿨고리

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다인산업(주)** | 054-652-3725 |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